

여름방학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교과목 튜터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의 첫 활동 시작을 알린 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정원 외 입학전형 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브라임은 ‘-아래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와 sub과 ‘문지방’을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limen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지혜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2013~2017학년도 1학기까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신입생(멘티)과 재학생(멘토) 514명(중복)이 참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디자인 교육, 프레젠테이션, 영어회화,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주제의 학습활동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진행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학생들이 대학 공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기초 과목에 대한 학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여름방학에는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교과 튜터링(이하 서브라임 튜터링)으로 내용과 형식을 바꿔 진행하였다. 서브라임 튜터링 프로그램 기획 전에 2017학년도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신입생 164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7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1%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학(37%), 과학(37%), 영어(28%)의 교과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서브라임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79%가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튜터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수요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방학 서브라임 교과 튜터링 프로그램을 기획한 결과 프로그램에 신입생 튜터 13명이 신청하였으며, 학내 공지를 통해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전공한 대학원생 석·박사 튜터 9명을 선발하였다. 서브라임 튜터링은 여름방학 7~8월 기간 중에 일대일, 그룹 튜터링의 방식으로 8회차로 진행되었다. 수학 과목은 수학 및 연습,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과목으로 튜터링이 진행되었고, 과학 과목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의 기초 과학으로 진행되었다. 기타 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영

● ● ●
박 소 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어회화 튜터링으로 진행하였으며, 글쓰기의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 내 글쓰기교실과 협력하여 일대일 지도가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서브라임 튜터링이 종료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91점, 튜터에 대한 만족도가 5.0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튜터가 수업에 성실하게 진행하였고, 설명내용이 유익하였으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피드백을 성실하게 해줘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소감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 사실 수업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은데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농업생명과학대학, 강00) ‘기균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많은 학습기회를 준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남은 방학기간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생활과학대학, 이00) 등을 제시하였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학생들은 저소득계열 및 농어촌 전형으로 구성되어 개별 학생마다의 다른 학업 수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자신이 가진 학업적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안을 위한 서브라임 튜터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전형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이들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서브라임 학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